

韓日 산업기술포럼

지난달 30일부터 이틀동안 일본의箱根(하코네)에서 열린 韓日산업기술포럼은 양국의 산업구조개편안과 기술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포럼에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韓日산업기술협력의 원천이었던 「피라미드형 산업구조」 또는 「플레트형 산업구조」가 앞으로 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본도 플레트형 산업구조의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까닭은 생산시설의 해외이주 및 계열관계의 붕괴, 기능인력의 육성난 등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이 시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은 애시당초 대기업중심의 「組立산업구조」로 짜여져 있어 수출이 늘면 불수출 경제가 성전하면 할수록 일본의 부품과 소재, 기계류를 더 많이 수입, 對日 무역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지적됐다.

따라서 韓日양국은 다같이 피라미드형 산업구조를 유지 또는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육성과 함께 독자적인개발능력을 갖춘 모험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흐름과 입점차, 환율변동 등이, 기반 기술충족등으로 미루어自國 국경안에서

피라미드형의 틀을한 산업 기반을 다지는 일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시각 또는 지구적(를 러벌)시야에서 생산立地를 분 산배치하는 문제가 점점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지역 전체를 놓고

산업구조를 조정할때 한국과 일본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일본에서는 노 후산업이 되고 있으며 인공적으로 이미 재산권이 약화된 텔레비전, VCR 등 주요품종을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 넘겨주는 문제가 검토되고

「피라미드형 산업구조」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일본의 체면과 업계의 미합의때문에 아직 구체적 결론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텔레비전같은 「眼界」 품목을 언제가 한국등에 이전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바 「新사회간접자본」에 서 한국이 참여할수 있다는 분 야가 상당히 넓을수도 있는의 견도 개진됐다. 일본은 무려 5백50조엔을 들여 ▲일본한국 중국 홍콩을 잇는 신간선의 터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거창한 사업을 新사회간접자본사업으 로 부르고 있다.

이 新사회간접자본사업이 본 격화되면 기술 및 자본면에서 多者間 협력의 불가피할것이라 는 얘기가 나왔다. 이世紀의(세기 적)사업은 미국 및 유럽자본 및 기술의 참여를 불러싼 경제마

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고 있는데, 일본측은 미 국의 압력에 대해 한국도 일본 과 손잡고 공동대처해야 할 날 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측은 또 이번 포럼에서 「社會기술(교통, 보건)場의 기술(환경)」「未來기술(멀티 미디어)등의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있을 지 도 모른다는 우리측 의견에 어 느정도 동의했다. 이와같이 사 회성과 미래성을 띤 21세기 산 업분야는 일본으로서도 아직

투자자 미미한 분야여서 한국 과의 공동개발과 투자협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일본측은 양국간의 산업기술 협력분야를 논의하면서 우리나 라의 주요인공시설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예 틀들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은 이미 세계적 으로 시설이 과잉이거나 수요 가 못따르고 있으며 투자 위험 이 증대하고 있는데도 한국업 체들이 무모하게 뛰어들고 있

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철부

자같은 「自敎的」투자가 어느지 기에는 히트를 치는등 한국은 어떤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논평했다. 또 무모한 투자로 자본가는 망해도 투자된 시설 은 남는다는 견해도 있었다.

일본측은 또 이번 포럼에 서는 또 일본과 한국, 기타국가 에서 「多기능高 價品」의 생산이

이러는 전망이 나왔다. 별로 활용도도 없이 무턱대 고 복잡하고 값비싼제품을 만 들어내는 신제품개발은 퇴조하 고 그대신 기본정기들은 충실 하되 값이 싼 신제품개발을 만 들어내는 추세가 두드러졌었다. 라는 전망이었다. 특히 일본은 「생활자중심제품」에 바뀌는 경 향이고 주요제품의 가격과관련 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고가품정체는 수그러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 자 통신분야의 신제품이 많았

지만 그것도 다기능 高價化에 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였다.

신제품경쟁 경쟁

출대없는 기술과 새이름을 붙여 신제품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업체에도 경종을 울 리는 말이다. 메이커의 과잉선 전에 휘말려 무턱대고 값비싼 제품을 구입해온 우리나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낱품 생 각해볼 과제가 아닐까.

결과 각나라의 산업경쟁력은 역사와 문화 국민인식과 교육 수준, 정치 및 사회제도, 경영 조직과 노동능률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것이라는 결론이 나 왔다.

한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법인데 이 잘하는 분야를 계속 살려 집중적으로 特化시 켜야만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공들인 의견이 었다. 이 포럼에서는 우리측에서 崔亨燮 전과기차장과 金永旭 생산기술연구원장 裴洵勳 대우 전자사장 朴宇熙 서울대학교수 등 7명, 일본측에서는 무가이보 다카시 日本원자력산업연구소장 키노노부무로 미쓰비시중공업구 소장단영, 스기우라 마사루 기 계전기기구본부장 하라사와료 東京대학교수 등 8명이 참가했 다.

〈편집국장대리〉

朝鮮日報（韓国）1994年10月5日

崔青林コラム

韓日産業技術フォーラム「ピラミッド型産業構造」

先月30日から2日間にわたり、日本の箱根で開かれた韓日産業技術フォーラムは、両国の産業構造の改編案と技術協力問題を集中的に論議した。このフォーラムでは、まずこれまで日本の産業経済力の源泉であった「ピラミッド型産業構造」または「フルセット型産業構造」が、今後も維持してゆけるかという問題が提起された。

日本もフルセット型産業構造の維持がしだいに難しくなっているが、その理由は生産施設の海外移転および系列関係の崩壊、技術者の育成難などで中小企業の活力が下火になっているからであると分析される。

韓国はもともと大企業中心の「組立産業構造」で編成されており、輸出が増加すればするほど、また経済が成長すればするほど日本の部品、素材、機械類をより多く輸入し、対日貿易赤字が増えてゆかざるを得ないという事実が改めて指摘された。

したがって韓日両国は共にピラミッド型産業構造を維持、構築するため、中小企業および中堅企業を育成すると共に、独創的な研究開発能力を持つ模範企業の創出が必要だとの意見が多く出た。

しかし世界経済の流れと賃金格差、為替変動の推移、基盤技術の蓄積度などから推し量ると、自国の国境内でピラミッド型の堅固な産業基盤を固めるのは困難であるため、アジア的な視角あるいは地球的（グローバル）な視野から生産立地を分散配置するという問題が、ますます重要な課題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アジア地域全体を考慮して産業構造を調整するとき韓国と日本が相互補完的に協力する分野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見解が台頭した。日本では老朽産業になっており、円高などですでに採算性が悪化しているテレビジョン、VTRなど主要品目を、東南アジアだけでなく我が国にも移転するという問題が検討されているという話も出た。日本の体面と業界の合意がないため、まだ具体的な結論が出てはいないが、テレビジョンのような「限界品目」をいつかは韓国などに移転せざるをえないということだ。

いわゆる「新社会間接資本」で、韓国が参与できる分野が相当広がり得るという意見も出た。日本は約550兆円を掛けて、▲日本、韓国、中国、香港を結ぶ新幹線のトンネル化、▲ロシア、韓国、日本を貫通する天然ガスパイプラインの建設、▲日本、韓国、シンガポールを結ぶ情報高速ハイウェイ構築などを推進しており、この壮大な事業を新社会間接資本事業と呼んでいる。

新社会間接資本

この社会間接資本事業が本格化すれば、技術および資本面で多者間の協力が不可避であるとの話だった。この世紀的な事業はアメリカおよびヨーロッパの資本と技術の参与を巡る経済摩擦が不可避であろうと筆者は予想するが、日本側はアメリカの圧力に対し、韓国も日本と手を握って共同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が遠くないことを強調した。

日本側はまた今回のフォーラムで「社会技術」（交通、保険）、「場の技術」（環境）、「未来技術」（マルチメディア）などの分野で、韓日両国が協力する分野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我が方の意見に対し、ある程度は同意した。このような社会性と未来性を帯びる21世紀産業の分野は、日本としてもまだ投資が僅かな分野であり、韓国との共同開発と投資協力の可能性が高いという意味であった。……【以下翻訳省略】